

‘교과세특’ 스토리텔링 방법론



지 상 범 의
입시 토크

◆2028 대입 개편의 본질

2028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안은 대한민국 대입 평가의 중심축을 정량적 수치에서 정성적 역량으로 이동시키는 거대한 전환점이다. 핵심은 고교 내신 평가 체계가 기존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전환된다는 점에 있다. 기존 9등급 체제에서 최상위권의 상징이었던 1등급 비율은 상위 4%에 불과했으나, 5등급제로 개편되면서 1등급 범위가 상위 10%까지 대폭 확대된다. 기존 1등급 전체와 2등급의 상당수 수험생까지 모두 동일한 ‘1등급’ 표기 안에 묶이는 셈이다.

내신 1등급 인원이 급증함에 따라 대학이 정량적 내신 등급 점수만으로 우수 인재를 선별하는 기능은 무력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들이 선택한 실질적인 평가의 핵심 도구가 바로 학생부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즉 ‘교과세특’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공통과목뿐만 아니라 진로선택과목과 융합선택과목에도 성취도(A~E)와 함께 5등급 상대평가가 병기된다. 단순 성적 수치만으로는 학업적 깊이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은 교과세특의 정성적 평가 요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이 변화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을 넘어 교과전형 및 정시 수능위주전형으로까지 정성 평가 반영이 확대되는 기류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10%라는 넓은 1등급 울타리 안에서 수험생 개개인의 진짜 학업 역량을 증명하는 핵심 변수는 과목별 교과세특에 담긴 스토리텔링과 탐구의 깊이이다.

◆세특의 성패를 결정짓는 3단계 공식

교과세특의 핵심은 무분별한 스펙 나열이 아닌, 교과 수업 과정에서 발현된 진정성 있는 학업적 궤적이다. 이때 수험생이 갖추어야 할 핵심 프레임워크가 바로 ‘동기-과정-성장’으로 이어지는 3단계 스토리텔링 구조다.

첫째, 탐구 동기(Motivation)는 반드시 교과 수업 내부에서 출발해야 한다. 수업 시간 교사의 설명, 교과서 개념, 혹은 단원 간 연계 과정에서 뜯겨 났던 자발적 지적 호기심이 서술의 시작이어야 개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탐구 과정은 세특 서술의 60%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 구간이다. 단순 인터넷 검색을 넘어 문헌 비교 분석, 통계 데이터 재해석, 변수를 달리한 실험 및 시뮬레이션 구축, 학술 논문 탐독 등 고차원적 탐구 행위가 구체적인 동사와 함께 기술되어야 한다. 문제해결 과정에서 직면한 학업적 한계를 극복한 방법론이 드러날 때 역량이 명확히 입증된다.

셋째, 성장 및 변화(Growth)는 탐구를 통한 지적 지평의 확장이다. 이는 주관적 감상 아닌, 탐구를 통해 얻은 비판적 시각이나

후속 탐구 과제, 타 교과목과의 융합 이행 계획으로 서술된다. 하나의 탐구가 또 다른 질문을 낳고 후속 탐구로 연결될 때 수험생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확신하게 된다.

◆대입 성공을 위한 3대 세특 관리 전략

2028 대입 개편 체제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세특 준비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첫째, ‘수행평가 요약지(탐구 로그북)’의 상시화 : 수업 중 생긴 질문, 참고 문헌, 데이터 분석 과정의 시행착오와 학업적 성찰을 매 수업 직후 일상적으로 기록하는 습관이 세특의 밀도를 결정한다.

둘째, ‘단 하나’의 깊이 있는 탐구에 집중 : 수많은 활동을 곁들기로 나열한 세특은 지적 깊이를 전달하지 못한다. 단 하나의 주제라도 문제해결을 위해 거친 논리적 단계와 지적 성장을 밀도 있게 담아내는 것이 훨씬 강력한 변별력을 갖는다.

셋째, 과목 선택 로드맵과의 연계성 확보 : 고교학점제하에서 본인이 선택해 이수한 과목들의 세특이 하나의 커다란 학업적 서사로 매끄럽게 이어지는 지 점검해야 한다.

10%로 확대된 1등급 울타리 안에서 자신만의 명확한 학업적 빛깔을 드러내는 유일한 열쇠는 수업 기반의 ‘동기-과정-성장’ 스토리텔링이다. 진정성 있는 탐구로 완성된 교과세특은 합격을 이끄는 가장 정교하고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JNB진로전략연구소장

반등과 회복 사이



기지 수첩

김 아 영
(자본시장부)

‘6천피 복귀’. 코스피가 6.63% 오른 6012.44에 마감한 28일 시장에 쏟아진 말이다. 7월 31일 이후 최대 상승폭이고 이를 연속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했다. 하루 만에 7.57% 빠지며 5554.22까지 밀렸던 15일로부터 2주가 채 지나지 않았다. 다만 그 2주 사이 돌아온 것이 지수뿐인지는 따져볼 일이다.

같은 2주를 지수가 아니라 계좌로 들여다 보면 장면이 달라진다. 이달 8~9일 하루 60억 원대였던 반대매매 금액은 12일 271억원, 13일 593억원으로 불어났다. 14일과 15일에는 각각 893억원, 805억원으로 이를 연속 800억

원을 넘었고, 14일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은 7.2%까지 치솟았다.

신용융자 잔고는 12일 34조2887억원에서 27일 29조6372억원으로 4조7000억원가량 줄었다. 자발적 상황도 섞여 있지만 감소는 반대매매가 몰린 시기와 겹친다. 증시 대기자 급인 투자자예탁금은 27일 90조1030억원으로 일주일 만에 90조원대를 되찾았지만 역대 최대였던 6월 4일 139조6947억원과 비교하면 50조원 가까이 모자란다.

반등과 회복은 흔히 같은 뜻으로 쓰인다. 하지만 반등은 지수의 일이고 회복은 사람의 일이다. 반등은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회복은 그 바닥 근처에서 무너졌던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때 비로소 이뤄진다.

15일 전후 강제로 정리된 주식은 28일 반

등에 참여하지 못했다. 반대매매는 팔 시점을 고를 수 없게 만들고 대개 가장 낮은 가격 근처에서 손실을 확정시킨다. 같은 종목을 같은 값에 샀더라도 버틸 수 있었던 계좌와 그러지 못한 계좌는 2주 만에 전혀 다른 숫자를 갖게 됐다. 28일 외국인과 기관은 1조7766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1조8016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는 28일 6000선을 되찾았고 시세판 위에서 이달 중순의 급락은 벌써 지나간 일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급락 한가운데서 계좌를 정리당한 투자자 상당수는 지금 이 반등의 자리에 없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지수가 어디까지 오르느냐보다 그 사이 떠난 돈과 사람이 얼마나 돌아오느냐다. 이번 주 코스피는 반등했지만, 회복은 이제부터의 일이다.

/aykim@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30일 (음 9월 20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취

48년생 구원의 손길이 다가옵니다. 60년생 오랜 끈기와 인내가 결실을 보게 됩니다. 72년생 자기의 자신을 아는 자가 현명한 자입니다. 84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소

49년생 하늘이 대복을 내려주니 반드시 이를 것입니다. 61년생 도모하는 일은 빨리 시행하세요. 73년생 어린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듭니다. 85년생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마세요.



호랑이

50년생 남에게 베풀고 보은하세요. 62년생 회사에서 업무중에는 조금씩 양보하세요. 74년생 결실을 얻게 됩니다. 86년생 벼에 게 물려갔으나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어나오는 격입니다.



토끼

51년생 한가지에 매진하면 좋은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63년생 계약은 혼자 진행하세요. 75년생 두 가지 소원은 이루기 어렵겠습니다. 87년생 연인과 다툼이나 이별 수 있겠습니다.



용

52년생 해외 여행이 꿈인데 몸이 따라 주지 않습니다. 64년생 남쪽에 있는 사람이 귀인입니다. 76년생 생활에 고통 받습니다. 88년생 오랜 친구가 나를 떠나게 되니 마음이 쓸쓸하겠습니다.



뱀

53년생 가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65년생 어려움에 슬기롭게 도전합니다. 77년생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하세요. 89년생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전진해야 합니다.



말

54년생 가족들 사이에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66년생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78년생 성에 차지 않더라도 당분간 만족하고 자중하세요. 90년생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곧 호전됩니다.



양

55년생 금전상으로 약간의 손실이 있겠습니다. 67년생 좀더 처신을 드림이 좋겠습니다. 79년생 변함 없이 노력한다면 우연한 기회에 좋은 운을 만날 것입니다. 91년생 애정운이 길합니다.



원숭이

56년생 욕심을 자제하고 그간의 일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68년생 자존심을 버리고 남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80년생 성공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92년생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닭

57년생 너무 서두르는 것도 길하지 못합니다. 69년생 기분을 좀 가라앉히세요. 81년생 일의 성과가 태양처럼 빛납니다. 93년생 다 된 일 망칠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행동하도록 하세요.



개

58년생 도움을 받아 좋은 거래가 성사됩니다. 70년생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82년생 마음에 두던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세요. 94년생 때론 포기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돼지

59년생 많은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고 따릅니다. 71년생 원대한 것을 이루겠습니다. 83년생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95년생 주변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조심하세요.



김상회의四季

가족의 발견

언젠가 엄마와 딸이 팔자의 월광사를 방문하였다. 그런데 그 표정은 엄마의 사주를 짚어보고 이야기가 깊어지면서 엄마가 지나온 세월 동안 마주쳐야 했던 비바람과 시련의 순간들이 사주의 흐름과 아우러져 그대로 드러났다. 엄마는 사주를 풀아가는 중간중간에 본인이 살아온 이야기를 조금씩 덧붙였다. 옆에서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듣기 시작한 딸의 표정은 갈수록 달라졌다. 엄마가 어둠 속을 지나가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슬퍼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했던 대목에서는 눈물을 보였다. 함께 기억하고 있는 즐거웠던 순간의 이야기에서는 기분 좋은 웃음을 지었다. 상담을 마치면서 딸은 엄마가 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재미로 시작한 상담에서 엄마의 인생을 다시 보게 된 것이다. 한번은 청년 둘이 아버지 사주를 보고 싶다며 찾아왔었다.

냉정하고 엄격하기만 한 아버지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사주를 풀어보니 아버지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는지 그리고 중년에는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대로 보였다. 아버지의 가장 큰 특징은 성실함이었다. 절대 남에게 기대지 않으려 했고 가족이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달려온 사람이었다. 아들들에게 엄격했던 건 강한 책임감의 영향이었다. 본인처럼 어렵게 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마음에 질책을 마다하지 않았다. 아버지 사주와 운세의 흐름을 본 아들들은 비로소 아버지를 이해하고 마음을 열게 됐다. 명리학은 이렇게 가족을 사랑으로 연결해주는 역할도 한다. 너무 가깝기에 오해가 많고 애증도 많은 게 가족이다. 쌓인 감정은 자칫하면 가족의 불화를 불러온다. 그런 때 서로의 사주를 보면서 인생을 반추해보면 가족을 이해하는 사랑의 발판이 된다. 명리학이 선물하는 감동의 순간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24호	
일간 메트로경제 < 유료, 월 2만원 >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28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한끼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153문제

결판스도쿠110

종자스도쿠 12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6	8	9	9	8	7	2	1	
7	9	1	8	7	2	1	8	6	9
2	9	1	8	6	2	7	8	9	
1	8	9	2	8	9	6	7	2	
6	2	7	1	9	7	9	8	8	
8	7	9	7	8	6	9	1	2	
9	1	2	6	7	8	8	9	7	
9	8	7	8	1	9	2	7	6	
8	7	6	9	7	2	1	9	8	

7	9	7	6	2	8	1	8	9
8	1	8	7	9	9	7	6	2
6	9	2	8	1	7	8	2	9
2	6	7	8	9	1	7	9	8
1	8	9	7	2	9	6	2	8
7	8	9	2	6	8	9	1	7
9	2	8	1	7	6	9	8	1
8	7	6	9	8	2	9	1	7
9	7	1	9	8	2	8	7	6